

## 16세기 安峰寺의 寺刹雜役考\*

-李文楨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이 성 임\*\*

- I. 머리말
- II. 安峰寺의 경제 규모
- III. 寺刹의 각종 잡역
- IV. 維那僧의 관리 체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李文楨의 『默齋日記』를 자료로 하여 16세기 貢納制 체제하에 사찰에서 이루어진 각종 잡역의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안봉사는 16세기 경상도 성주목 서북방 20리에 위치한 사찰로 성주 이씨의 원찰이다. 안봉사의 경제규모는 30마지기의 사유지, 논 2마지기와 밭 3뽕기 정도였는데, 1557년에 위전 1결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안봉사에는 20여 명 정도의 승이 적을 두었으며, 이 중에 1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204)

\*\*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봉사는 사찰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종이를 생산할 정도의 비중 있는 사찰 중의 하나였다.

안봉사의 승역은 일정부분 지방군현의 수취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16세기 안봉사는 8결호로 편제되어 공물과 요역을 담당하였으며, 사찰에서는 군현에서 부과하는 각종 역을 부담하고 있었다. 사찰의 잡역은 관아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었다. 안봉사는 관아에서 지급하는 재료를 받아서 정해진 규모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었다. 이로서 그동안 사찰에서 원료의 생산에서 물품의 제작까지 모든 것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봉사의 승은 이문건을 통하여 役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는데, 이는 그들이 부담하는 역이 지나치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16세기 지방관아 사찰 잡역은 維那라는 관리체제로 운영되었다. 유나승은 宗團의 維那所에서 선정하는데, 이 직은 사찰마다 돌아가며 맡게 되어 있었다. 유나승은 종이제작·메주생산·두부생산·삼베 익히기·도토리 줍기 등 사찰의 각종 잡역을 총괄하였다. 유나승의 일은 군현의 수취체제와 관련된다. 점에서 공물과 잡물의 수취를 담당하는 鄉吏의 지시를 받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鄉所가 가지고 있었다. 향소의 별감은 이들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교체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 종단에서는 승을 유나로 삼아 일의 효율을 꾀하고자 했지만, 이들의 신분이나 처지가 너무 낮아 양반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승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방관아의 수요에 응하였다. 이들이 생산한 종이·삼베·메주·두부 등은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기를 통해서 이것의 상품유통과 연계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 ◆ 주제어

李文樞, 『默齋日記』, 貢納制, 役僧, 造紙, 熟麻, 末醬, 賑恤, 維那僧, 維那所, 鄉所

## I. 머리말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고 여겨져 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에 불교사 내부에서도 불교가 억압되고 승이 천인에 가까웠다는 피해의식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sup>1)</sup> 국가정책과 연동된 승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승단 내의 계층 분화와 사원경제, 유교사회에서 불교가 담당한 종교적 기능 등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sup>2)</sup>

조선시대 승이 맡아 하던 일은 ‘僧役’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3)</sup>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山陵役·紙役·僧軍 등에 연구의 초점이 두어졌는데, 승역의 실상을 파악하기보다는 폐단에 주목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승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인해 사찰이 도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大同法 이후에 집중되어 貢納制 체제에서의 승역의 실상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최근에 불교사 연구에 주목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일기이다. 일기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양반 남성이 작성한 자료임에도 승이나 사찰의 불교 관련 내용이 적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李文樞의 『默齋日記』에는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 승의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양반과 佛法이나 詩文을 논하는 學僧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각종 잡역에 동원되는 役僧이 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문건의 『묵재일기』

- 
- 1) 김용태, 「조선시대 불교연구의 성과와 과제」, 『불교학연구』 6, 2013.
  - 2)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실제-승정체제, 사찰, 승도에 대한 정책의 성격과 변천」, 『한국문화』 83, 2018.
  - 3) 車相瓌, 「朝鮮僧兵制度」, 『朝鮮史外寺』, 明星寺, 1947.  
李光麟, 「李朝後半期の 寺刹製紙業」, 『歷史學報』 17·18합, 1962.  
鄭珖鎬, 「李朝後期 寺院雜役考」, 『史學論』 2, 1974.  
박용숙, 「조선조 후기의 僧役に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논문집』 31, 1981.  
吳京厚, 「朝鮮後期 僧役의 類型과 弊端」, 『國史館論叢』 107, 2005.  
배명애, 「조선전기의 승려통제책과 僧役」, 『釜大史學』 30, 2006.  
윤용출,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 28, 2011.  
오경후, 「光海君·仁祖 年間 僧役의 實際」, 『韓國佛教史研究』 6, 2015.

』를 통해 경상도 성주지역 역승의 존재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봉사의 승은 僧軍이나 山陵役에 동원되기도 하지만 이는 부정기적이며, 평상시에는 지방관아에서 요청한 貢物과 雜物을 제작해 바치고 있었다.

안봉사는 성주 이씨의 願刹이므로<sup>4)</sup> 이문건과의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었다. 안봉사 승은 수시로 이문건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이문건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까닭에 한 때 안봉사는 이문건의 庇護로 雜役이 없는 사찰로 알려지기도 했다.<sup>5)</sup>

안봉사의 다양한 잡역 중에 종이제작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일찍이 김인규는 안봉사 승들이 사찰과 紙所를 통해 종이를 제작하여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일을 維那僧이 주관하였음을 밝혀냈다. 이 논문은 종이제작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sup>6)</sup> 최근에는 이성임이 안봉사가 성주목에서 공물로 수취한 닥나무를 지급받아 종이를 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여<sup>7)</sup> 사찰의 각종 잡역은 지방관아의 수취체제와 연동된다는 점을 지적했다.<sup>8)</sup> 여기서는 기왕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봉사에서 이루어진 각종 잡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6세기 공납제 체제에서 사찰이 담당하고 있는 역의 실태가 밝혀져야 군현의 수취체제가 명확하게

4) 박정미, 「16세기 星州 李氏 影堂寺刹 安峯寺의 규모와 운영-『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1, 2013 ; 「조선 명종대 星州 安峯寺의 儒佛儀禮-『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2, 2014.

5) 「安峯三寶以州官之招下來聽令, 則曰“寺以△之護, 不爲雜役, 僧徒多住云. 可備供饌都會儒生之菜”云云.」(『목재일기』 1556년 9월 11일조).

6) 김인규, 「朝鮮 明宗代 星州地域 寺刹의 製紙活動」, 『傳統文化論叢』 1(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3.

7) 일반적으로 종이제작에 필요한 닥나무는 사찰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조극선의 『인재일록』에서도 양반이 사찰에 종이제작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닥나무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손계영, 「17세기 사대 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조극선의 일기를 중심으로-」, 『장서각』 38, 2017).

8) 이성임, 「16세기 지방군현의 立役體制와 승려의 賦役」,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드러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II. 安峰寺의 경제 규모

『목재일기』는 이문건이 32년간 자신의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모두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문건이 41세인 153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73세로 죽기 1개월 전인 1567년 2월까지의 기록이다. 41세부터 일기를 썼다면 32년분이 되어야 하지만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 실제 남아있는 것은 17년 8개월분이다. 이 일기는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책과 2책이 중앙에서 활동하던 내용이며, 나머지 3책부터 10책까지는 모두 성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기록이다. 그러므로 일기의 중심은 이문건이 성주에서 유배 생활하던 곳에 가 있다.

이문건은 유배 이후 사망할 때까지(1545~1567) 관아 주변에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일지식으로 기록하였다. 당시 이문건은 정배인의 입장에서 성주지역 지방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문건은 성주지역의 實勢로서 수령-향리-民戶를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승들도 이문건이 갖는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문건을 찾아와 어려운 점을 토로하였고, 이문건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문건은 문제의 해결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지나치게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안봉사<sup>9)</sup>는 성주 이씨 14位の 影幀을 봉안한 원찰일 뿐만 아니라<sup>10)</sup> 불안정한 시기에 질병이나 죽음의

9) 안봉사는 성종 이후 성주이씨 가문의 影幀을 봉안하고 있어 이 집안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이 절은 조선후기에 安山影堂으로 바뀌었다. 이 안산영당도 이 지역에 설정된 8結戶인 安山戶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안봉사는 조선 태종 때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일본 사신에게 주었던 佛經을 보관했다고 한다. (김인규, 앞의 논문, 89쪽)

10) 「당의 중앙에는 隴西公의 영정, 西壁 남쪽에는 李百年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화살[御簇], 그 다음은 文烈公, 그 다음은 李仲善의 초상화, 그 다음은 시종 敬元公의 초상화, 그 다음 북벽의 서쪽에는 李麟起가 임금으로부터 받은 화살, 그 다음은 대제학 仁敏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안식처이기도 했다.

안봉사는 성주 서북방 20리 거리에 위치한 사찰로서 성주 이씨의 靈堂·守護寺의 성격을 갖는다. 15세기 이후 공인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鄉校·驛·鄉廳 등 지방관부의 시설로 전용되거나 재지세력의 願堂·齋舍·精舍 및 서당·서원 등 유학교육시설로 대체되거나 향촌세력의 屬寺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봉사도 성주 이씨의 원찰로 바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곳은 이문건의 증시조인 李長庚을 비롯한 선조 14위의 영정을 모시게 되었다.<sup>11)</sup>

안봉사의 중심구역인 寺域에 법당·조전·송방·삼보청·종각·누각이, 사역의 서쪽으로 부속된 영당구역에 영자전과 행랑이 있었다. 거기에 부속암자인 道雲庵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면 우선 사찰의 경제규모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sup>12)</sup> 현재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안봉사에는 영당제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30마지기 토지, 그리고 논 2마지기과 밭 3배기 위전을 가졌다. 여기에 1557년 寺位田 1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

性輪이 나물을 보내고, 겸하여 位田 1結을 坐第한 것을 알려주었다<sup>13)</sup>

1557년 7월 안봉사 삼보승 성륜은 위전 1결을 坐第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좌제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토지를 量案이나 문서에 등재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들 안봉사의 위전에서는 쌀·보리·조·콩·팥 등의 다양한 곡물을 생산하였으며, 여기서 거둔 세를 성주 관아에 바치

의 초상화, 그 다음은 仁任의 초상화, 그 다음은 李元具의 초상화, 그 다음은 李崇仁의 초상화, 그 다음 동벽의 북쪽에는 李濟의 초상화, 그 다음은 文景公의 초상화, 그 다음은 한성부윤의 초상화, 그 다음은 李升商의 초상화로 모두 14위이다.」(『목재일기』 1546년 1월 13일조)

11) 이수건, 「서원의 역사와 그 소장자료」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46~52쪽.

12) 이성임, 「16세기 지방군현의 立役體制와 승려의 賦役」,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181~190쪽.

13) 「性輪送菜物, 兼示位田一結坐第.」(『목재일기』 1555년 7월 19일조).

게 되었다. 안봉사 승은 이를 면제받기 위해 이문건에게 청탁을 넣었고, 그러면 성주목사와 관관은 여기에 면세의 혜택을 주었다.

다음은 안봉사 승의 규모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승의 규모도 사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상주하는 승도 있지만, 적만 두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승을 역사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호패를 지급했지만<sup>14)</sup> 안봉사 승 중에 호패를 소지한 자를 구별해 내기는 어렵다. 다만 1553년 12월 을묘왜변을 당해 僧軍을 차출할 때 경상도의 승군을 매월 초하루에 700명씩 교체하되 호패와 무관하게 승이면 모두 차정한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호패를 소지한 자들이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sup>15)</sup> 특히 希尙(?~1562.2.20)의 경우 안봉사의 三寶僧<sup>16)</sup>과 성주목의 維那僧을 지냈으며 佛法에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다.<sup>17)</sup> 이 때 회상은 文定王后로 인해 일시적으로 僧科가 부활되자 이에 응시하기 위해 陳省을 발급받았다.<sup>18)</sup> 즉, 大禪 取才를 위해 戶籍이 소재한 대구부에서 자신의 4祖 職役을 확인받아 제출하였다.<sup>19)</sup> 그러나 상당수의 승은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간 피역승 이었다.<sup>20)</sup>

14) 이종영, 「僧人號牌考」, 『東方學志』 6, 1963, 202~206쪽.

15) 「性輪忤探僧軍奇別. 令呂安問諸色吏咸世, 則慶尙道僧軍每一朔七百名式相遞, 役畢爲限抄送云云, 勿論號牌, 有實僧皆定云云. 以此答送. 又送眞荏五斗, 令汁油送來. 峇熙處還送丹木, 都江引丹木減帖并送去.」(『목재일기』 1553년 12월 4일조).

16) 삼보는 안봉사와 영당제를 운영하는 승으로 지금의 주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안봉사가 성주 이씨 원찰인 만큼 삼보의 차정은 영당제를 치른 뒤에 성주이씨 문중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박정미, 앞의 논문, 『태동고전연구』 31, 2013, 75~80쪽).

17) 「令道前希尙大禪取才陳省請出給, 則時不知例事未出給云云.」(『목재일기』 1552년 2월 5일조).

18) 김대홍 외, 『6. 원문표점 목재일기 2. 목재일기 인물사전』, 경인문화사, 2019, 698쪽.

19) 『목재일기』 1552년 1월 2일조, 1552년 2월 5일조, 1552년 2월 26일조, 1552년 2월 30일조, 1552년 3월 1일조.

20) 김순남, 「16세기 조선의 피역승의 증가와 승도 조직의 재건」, 『朝鮮時代史學報』 66, 2013.

㉑ 목사 영공이 안봉사 승려 17명으로 하여금 부역을 하도록 독촉한다며 三寶가 급히 갔다.<sup>21)</sup>

㉒ 안봉사 승 12명이 推刷 문제 때문에 성주 관아에 왔다가 나를 보기위해 들렀기에, 물만밥[水飯]을 먹여 보냈다.<sup>22)</sup>

㉓ 안봉사 수승 岑熙가 말하기를 “초 10일 僧軍을 點考할 때 寺內에서 명단을 제출한 자가 20명인데 흠어져 있어 불러들이기가 어려우니 매우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종이 1장에 차례대로 쓰게 하고, 술을 먹여 보냈다.<sup>23)</sup>

㉔ 呂謹이 서원 짓는 것을 감독하는데, 매번 안봉사 승군 40명을 조달하여役을 독촉하고 있다 한다.<sup>24)</sup>

자료 ㉑ ㉒를 통해 최소한 승이 10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자료 ㉓를 통해 20명이 點考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명은 을묘왜변으로 승군을 동원하기 위해 점고할 당시 명단을 제출한 인원으로, 이들이 상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㉔에서와 같이 영봉서원 건립 당시 안봉사에서 40명의 승군을 조달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한 번에 동원된 인원인지는 불분명하다. 40명이 한 번에 동원된 것이라면, 4년 동안 2배의 인원이 증가한 계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봉사에는 평상시에 20여 명의 승이 적을 두었으며, 이 중에 1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 『목재일기』 1546년 4월 24일조.

22) 『목재일기』 1552년 6월 21일조.

23) 『목재일기』 1554년 1월 8일조.

24) 「呂謹監造書院, 每調發安峯僧軍四十名, 督役云云.」(『목재일기』 1558년 8월 29일조).



### Ⅲ. 寺刹의 각종 잡역

#### 1. 종이 제작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주 소재 사찰이 용흥사·인흥사·심원사·안봉사·적선사·용연사·법수사라고 되어 있다.<sup>25)</sup> 그러나 『목재일기』에는 이 중에 상당수는 사라지고 안봉사·積山寺<sup>26)</sup>·龍淵寺·龍起寺 정도의 사찰이 확인되고 있다. 안봉사·적산사·용기사는 성주목에 있었으며, 용연사는 속현인 花園에 위치하였다. 이들 사찰 중에 종이를 생산하던 사찰은 안봉사·적산사·용기사이며, 이 중에 용기사에서는 戶籍紙를 전담하고 있었다.<sup>27)</sup> 호적지는 3년에 1회 생산하는 것이므로 매해 종이를 생산하던 사찰은 안봉사와 적산사 뿐이라고 하겠다.

종이제작은 가장 대표적인 僧役이다.<sup>28)</sup> 일반적으로 종이생산은 닥나무의 재배부터 종이 제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찰이 산간에 위치하므로 닥나무 재배에 좋은 조건을 지닌 것으로 거론되기도 한다.<sup>29)</sup> 그러나 닥나무는 산간이 아니라 평지에서 생산되며, 楮田이라고 해서 닥나무를 재배하는 것도 아니다.<sup>30)</sup>

안봉사에서는 관아에서 지급한 닥나무를 재료로 하여 종이를 제작하였다. 닥나무는 성주지역 貢物의 하나로 8結戶<sup>31)</sup>로부터 거둬들인 것이다. 여기서 8결호란 공물수취와 요역부과의 대상이 되는 貢役戶이다.<sup>32)</sup>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8, 星州牧 佛宇條.

26)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적선사는 積山寺와 동일 사찰로 보인다.

27) 『목재일기』 1553년 1월 8일조.

28) 紙役의 문제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이성임, 앞의 논문).

29) 吳京厚, 앞의 논문, 14~19쪽.

30) 이문건 집안에도 白楮라는 지목의 논의 있었는데, 여기서는 닥나무가 아니라 벼가 생산되었다 (『목재일기』 1562년 9월 6일조).

31) 8結戶란 벼 800점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엮은 호이다. 安山戶는 안봉사 인근에 조성된 호명으로 그 위치는 雲谷坊 주변이다.

32) 이성임, 「16~17세기 ‘공역호’(貢役戶)와 호수(戶首)」, 『역사연구』 24, 2013.

『세종실록지리지』에는 土宜條와 土貢條에 楮와 紙가 기재되었으며, 일기에서도 실제 白楮를 거둬들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sup>33)</sup>

종이제작은 성주관아에서 닥나무를 나눠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551년 4월 유나승이 100근의 닥나무를 두 개의 절에 나눠주어 종이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sup>34)</sup> 안봉사에서는 대략 50근 정도의 닥나무를 받아 종이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승들은 종이제작을 좋아하지 않아 닥나무 분정시기가 되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1546년(명종 1) 2월 승 性輪은 이문건을 찾아와 지금 기와를 제작하려 하는데 종이까지 만들라고 하여 형편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문건은 이 사실을 목사에게 전하여 닥나무를 분정하지 않게 해 주었다. 이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는지 안봉사 이외에 적산사 승까지 이문건을 찾아오는 바람에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sup>35)</sup> 그 해 7월 승 靈昭는 종이를 제작할 테니 대신 양을 좀 줄여달라고 했다.<sup>36)</sup> 1552년 7월 普明은 종이를 제작할 기구가 없다면 닥나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sup>37)</sup>

안봉사의 종이제작은 서쪽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1553년(명종 8) 10월 안봉사를 방문한 이문건은 서쪽 뜰에 있는 우물을 보면서 승려들이 종이를 제작한 곳이라고 하였다.<sup>38)</sup> 아마도 안봉사 경내에 위치한 우물은 종이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했던 듯하며, 승려들은 여기에 각종 도구를 갖추어 놓고 밭을 이용하여 종이를 뚫을 것이다.<sup>39)</sup>

닥나무는 10~11월에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伐楮라고 하고, 다음 단계가 닥나무를 찢통에 넣어 찌는 것인데 이를 烝楮라고 한다. 그 다음으

33) 『목재일기』 1547년 1월 5일조, 1551년 2월 11일조, 1552년 7월 27일조, 1555년 7월 29일조, 1557년 12월 3일조, 1561년 8월 8일조.

34) 『維那僧來遺長扇一, 且白“官廳付楮百斤, 使分安峯·赤山, 故來白”云云.』(『목재일기』 1551년 4월 29일조).

35) 『목재일기』 1546년 2월 24일조, 1546년 2월 25일조.

36) 『목재일기』 1546년 7월 3일조, 1546년 7월 4일조.

37) 『普明僧持瓜及白鞋來遺, 又請“官紙分造白楮勿頒事圖之”云. 似難也. 維那所分楮四斤 無器具不能造云, 持來言之.』(『목재일기』 1552년 7월 16일조).

38) 『목재일기』 1553년 10월 6일조.

39) 김인규, 앞의 논문, 92쪽.

로 닥피를 분리하고 黑皮를 제거하게 된다. 닥피의 바깥 부분인 흑피를 제거해야 백지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 흑피가 제거된 닥피를 방망이로 두들기는 작업을 搗楮라고 하는데, 닥나무를 오래 두들겨야 질긴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sup>40)</sup>

안봉사에서 종이를 만드는 것은 관아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었다. 승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방관아의 수요에 응하고 있었다. 안봉사는 관아에서 지급하는 닥나무를 받아서 정해진 규모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했다. 그러므로 사찰이 원료의 생산에서 물품의 제작까지 담당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다. 안봉사의 승은 이문건을 찾아와 지역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는데, 이는 그들이 부담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종이를 관아에 바치는 절차도 쉽지는 않다. 담당 향리는 종이의 품질을 살펴 點退여부를 결정하는데, 점퇴를 받게 되면 다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안봉사 승은 이문건이 대신 납품해 주길 원했다. 1548년(명종 3) 6월 釋敏은 만든 종이를 이문건의 거처에 두고 갔다. 관아에 바치려고 왔으나 관아가 비어 있어서 바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sup>41)</sup> 1551년(명종 6) 性輪과 釋閑은 종이와 보리를 바치기 위해 내려왔다면서 이문건을 찾아왔다.<sup>42)</sup> 이문건이 바치게 되면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관아에서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 2. 메주 생산

안봉사는 종이 제작 이외에 진홀과 관련된 일도 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메주를 담그고 도토리를 줌의 일이었다. 메주는 장의 원료로 관아의 각종 營建과 賑恤에 필요하였다. 군현에서는 쌀이나 보리·콩[太] 이외에

40) 손계영, 앞의 논문, 36~38쪽.

41) 『목재일기』 1548년 6월 27일조.

42) 『목재일기』 1551년 5월 29일조.

메주와 미역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성주목에서는 메주 만들 콩<sup>43)</sup>을 안봉사에 분급하였다. 그러나 콩은 백저나 생마같이 8결호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이는 쌀 다음으로 흔한 곡물이므로 별도로 거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㉓ 오늘 山寺에 메주 담글 콩을 나누어 주었다. 안봉사 승이 와서 5섬을 받아다가 이곳에 옮겨 두었는데, 8말이 부족하다고 한다. 승 信默이 와서 장을 담글 태를 줄여 받게 해 달라고 했으나 관아에서 듣지 않았다.<sup>44)</sup>

㉔ 산승 普明이 메주 담글 콩에 대해 청했는데, 작은 절인데도 할당된 것이 2섬에 이르고 또 없어진 것이 7말이라고 했다. 1섬은 담그도록 하고, 나머지 콩은 이곳으로 보내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sup>45)</sup>

㉕ 산승 普明이 아침에 왔기에 밥을 먹였다. 관관에게 성주 관아에서 부치는 메주 담글 콩을 道雲庵에는 부치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維那에게 지시를 내려 주었으나 유나가 제멋대로 1섬을 할당했다는 사실을 고하러 온 것이다.<sup>46)</sup>

㉖ 승 普明이 무[菁根]를 보내며 메주 담글 콩을 줄여서 받도록 해달라고 한다. 사람을 보내 希尙에게 말했더니 와서 말하기를, “보명이 거짓으로 승이 적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습니다. 2섬을 나누는 게 좋겠다고 이미 목사에게 말했습니다”라고 한다. 밋다. 안봉사에도 2섬을 주었다고 한다.<sup>47)</sup>

㉗ 관청에서 메주를 받기에 奴로 하여금 안봉사 것 3섬과 도운암 것 1섬을 실어다

43) 콩은 大豆와 동일한 뜻으로 메주나 두부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44) 「今日山寺分末醬太. 安峰僧來受五斛, 移置于此, 八斗欠云云. 信默僧來求減受醬太云. 不從.」(『목재일기』 1551년 1월 24일조).

45) 「山僧普明來請末醬太, 小寺至分二石, 且耗七斗云. 許令造一石, 而餘太送此, 當爲處置云.」(『목재일기』 1551년 2월 1일조).

46) 「山僧普明朝來. 饋食. 州付末醬太, 請二城主使勿付道雲, 則行下于維那. 維那擅分一石云, 來言之. 使輸太來此. 勿付道雲, 則更分于他等寺云云.」(『목재일기』 1552년 1월 29일조).

47) 「普明僧送菁根, 請減受醬太云云. 伴言于希尙, 則來言曰“普明詐言僧少, 僧實多. 可分二石事, 已白牧官前”云云. 可僧. 安峯亦分二石云云.」(『목재일기』 1554년 11월 4일조).

바치도록 했는데, 모두 정해진 수효이다. 侍郎이 안봉사의 메주 2섬은 두고 쓰시라고 했다.<sup>48)</sup>

㉞ 性輪이 와서 메주 2섬을 가져다 두었는데, 관에 바칠 것이어서 바깥방에 쌓아놓고 봉하여 적어두게 했다.<sup>49)</sup>

안봉사는 관아에서 지급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다. 안봉사의 승은 메주 만드는 작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콩을 나눠줄 시기가 되면 빠져나갈 방도를 강구하는데, 信默·普明·智暹·性倫 등이 이문건을 찾아온 까닭은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면 안봉사에서 어느 정도의 메주를 만들었을까. 자료 ㉢와 ㉞를 통해 이들이 일 년에 바쳐야할 메주가 4~5섬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51년 2월 이문건이 메주 4섬을 바치면서 이 중에 안봉사 것이 3섬, 도운암 것이 1섬이라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4~5섬 정도가 정해진 수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봉사 승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규모를 줄이고자 했으며, 아예 제작하지 말라는 完文을 받기도 했다.<sup>50)</sup>

메주를 바칠 때에도 이문건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이 메주를 이문건의 거처에 실어다 놓으면, 이문건의 노가 가져다 바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點退 당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551년 3월에도 이문건의 奴가 가져다 바쳤는데, 이 때 관관이 4섬 중에 절반을 이문건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였다.

48) 「官廳捧末醬, 令奴輸納安峰三石、道雲一石, 皆准斛. 安峯末醬二石, 以侍郎令留用.」(『목재일기』 1551년 3월 22일조).

49) 「性輪來置末醬二石, 納官者也. 入積外房, 令封誌焉.」(『목재일기』 1555년 3월 15일조).

50) 『목재일기』 1555년 윤11월 24일조.

### 3. 두부 생산

조선시대 사찰은 양반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었다. 양반 자제들의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 실제 이문건의 從孫 天澤과 손자 淑吉도 오랫동안 사찰에서 공부 했다. 안봉사에서는 성주 이씨 영당제를 지내고 있어 이들 일족이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졌다. 이 외에도 유생들이 수시로 사찰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리하여 승이 양반의 수발을 드는 행위가 하나의 役으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이 격기[役只]이다.

안봉사에는 절을 찾는 유생들에게 두부를 만들어 대접했다. 두부는 일반적으로 泡라고 하지만 豆腐라고도 불리었다. 사찰에서는 일반적으로 泡炙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드는 음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두부를 기름에 지진 음식일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양반들은 여름에는 家獐會로, 겨울에는 軟泡會로 풍취를 즐겼던 것이다. 두부적을 먹기 위해 일부러 사찰에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문건의 손자 淑吉도 안봉사를 다녀온 뒤 항상 두부적 이야기를 했다. 즉, 두부적을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났다고 하는가 하면<sup>51)</sup> 두부적을 많이 먹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sup>52)</sup> 이처럼 당시 양반들이 사찰에 올라가 두부적을 먹는 것은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이었다.

안봉사에는 두부를 제조하는 造泡間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1552년 10월 삼보 性田이 이문건을 찾아와 正鐵 4조각을 달라고 했는데, 조포간을 다시 만든다는 이유에서 였다.<sup>53)</sup> 실제 智一은 이에 필요한 목수를 구했으며,<sup>54)</sup> 1553년 7월부터는 조포간 개수를 시작하고 있다.<sup>55)</sup>

안봉사 승은 두부제작을 상당히 고역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맷돌에서 磨心鐵<sup>56)</sup>을 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557년 12월 이문건의

51) 『목재일기』 1561년 2월 13일조.

52) 『목재일기』 1561년 11월 26일조.

53) 『목재일기』 1552년 10월 16일조.

54) 『목재일기』 1552년 10월 24일조.

55) 『목재일기』 1553년 7월 16일조.

종손 현배는 편지로 승이 두부 만드는 일을 전해왔는데, “두부 만드는 일이 너무 고역이라 저희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심철을 빼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sup>57)</sup> 이에 이문건이 편지로 마심철을 빼버리라고 하자, 다음날 승이 마심철을 빼가지고 왔다.<sup>58)</sup> 이에 이문건이 마심철을 받아두었는데, 며칠 뒤에 승이 다시 찾아와 이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이문건은 그들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겨 내주지 않았다.<sup>59)</sup>

#### 4. 熟麻 과정

안봉사는 종이와 메주 제작 이외에 生麻를 익히는 熟麻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는 베어낸 생마를 잣물에 삶아 부드럽고 희게 만드는 과정이다. 베는 고려 말 목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이전의 옷감일 뿐만 아니라 화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삼나무를 잘라 잎을 훑어낸 다음 이를 잣물에 넣고 삶아낸다. 다음 삼의 껍질을 벗기고 이를 삶아서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좋은 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숙마과정도 고역이므로 승이 이를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승 信默의 경우, 종이제작과 熟麻가 과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성주에서 합천으로 옮겨가기도 했다.<sup>60)</sup>

麻도 白楮와 마찬가지로 성주지역의 공물의 하나로 『세종실록지리지』의 土宜條에 등재되어 있다.<sup>61)</sup> 일기에는 이문건이 성주목사나 판관에게

56) 磨心鐵은 일반적으로 맷돌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솟맷돌과 암맷돌에 끼우는 쇳덩이를 말한다. 이것이 있어야 콩을 갈 수 있다.

57) 「玄培書問, ……傳書來僧言, “造泡事, 極苦, 僧不安接, 欲去磨心鐵”云云.」(『목재일기』 1557년 12월 20일조).

58) 『목재일기』 1557년 12월 21일조.

59) 『목재일기』 1557년 12월 29일조.

60) 「僧信默來遺冬瓜·茸等物, 飯送之, 移住陝川云, 星州造紙·熟麻等事不支故云云.」(『목재일기』 1552년 8월 10일조).

61) 이성임, 「16세기 지방 군현의 공물분정(貢物分定)과 수취-경상도 성주(星州)를 대상

마를 줄이거나 아예 빼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먼저 1545년 12월 이문건은 병작자인 延孫戶의 麻絲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는데,<sup>62)</sup> 관관이 田結의 규모를 문제 삼아 들어주지 않았다.<sup>63)</sup> 1551년 7월 이문건 집안에 자주 왕래하던 鄭潤福은 노 돌동[疋同]이 내야할 산마를 아예 제외시키려고 했다.<sup>64)</sup> 그는 자신의 6촌인 鄭大年과 이문건의 관계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이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sup>65)</sup> 이어 1552년 8월에는 이문건의 친척인 金世紹가 산마는 물론이고 자신이 내야할 여러 공물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sup>66)</sup> 1552년 윤7월에는 동성 친족인 李春陽이 산마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sup>67)</sup> 이를 허락 받았다.<sup>68)</sup> 1562년 7월에는 이문건의 토지 병작인 權禮孫이 생마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sup>69)</sup>

㉡ 普明이 道雲庵의 승이 수효가 모자라니 닥나무[楮]와 麻를 분급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 관관에게 편지를 써서 힘써 주길 청했다.<sup>70)</sup>

㉢ 안봉사 승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 서까래 나무를 실어왔습니다” 라고 했다. 성주 향리가 生麻를 찌게 했다가에 물었더니, 猪網을 만들기 위해 進上色이 나누어 찌게 했다고 한다.<sup>71)</sup>

㉣ 안봉사 삼보 智暹이 와서, 중에게 먹일 쌀이 부족하다고 했다. …… 관청에 바칠

으로-, 『역사와 현실』 72, 2009, 36~38쪽.

62) 『목재일기』 1545년 12월 15일조.

63) 『목재일기』 1545년 12월 26일조.

64) 『목재일기』 1551년 7월 18일조.

65) 『목재일기』 1545년 12월 29일조.

66) 『목재일기』 1552년 8월 14일조.

67) 『목재일기』 1558년 윤7월 19일조.

68) 『목재일기』 1558년 윤7월 20일조.

69) 『목재일기』 1562년 7월 4일조.

70) 「道雲庵僧殘勿分楮、麻事、因普明之請、簡白二道而圖之.」(『목재일기』 1552년 7월 17일조).

71) 「安峯僧人來言“今日輸椽木”云. 州吏使熟生麻云云, 問之, 則猪網次, 進上色分熟之云云.」(『목재일기』 1546년 10월 29일조).



熟麻를 여기 두고 갔다.<sup>72)</sup>

안봉사 승은 종이제작과 숙마과정을 좋아하지 않아 이문건을 통해 피역의 방안을 강구했다. 1552년 7월 안봉사의 삼보승 普明은 道雲庵의 인원이 적으니 종이제작과 숙마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종이제작과 마찬가지로 숙마과정에도 생마를 관아에서 지급하였다. 안봉사 승은 생마를 받아 정해진 수요의 숙마를 제작 납품하였다. 이들은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아의 수요에 응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숙마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일반적으로는 옷감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사냥도구나 자리제작에 쓰기도 하였다. 1546년 10월 이문건은 성주 향리가 안봉사에 生麻를 찌게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猪網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관아에서 꿩이나 멧돼지 포획을 위해 사냥을 나갈 때 필요한 도구를 제작한 것이다. 1558년 4월 관관은 席匠 崔石文에게 숙마를 주면서 久席을 짜오게 했는데,<sup>73)</sup> 이는 관아에 필요한 자리이다.

안봉사 승은 숙마를 바치는 과정에서도 이문건을 활용하였다. 이는 종이나 메주를 납품할 때와 같은 모습이다. 1546년 9월 삼보승 智暹은 관청에 바쳐야 할 숙마를 이문건의 집에 두고 갔는데, 이는 이문건이 대신 받쳐주길 바라는 뜻이었다.<sup>74)</sup> 즉, 다소 하자가 있어도 점퇴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문건은 다음날 별뜻 없이 숙마를 관아에 바쳤다.<sup>75)</sup>

72) 「安峯三寶智暹來言饋僧米不足云云. …… 其所納官廳熟麻 留此而去.」(『목재일기』 1546년 9월 2일조).

73) 『목재일기』 1558년 4월 2일조, 1558년 4월 22일조.

74) 『목재일기』 1546년 9월 3일조.

75) 『목재일기』 1546년 9월 4일조.

## 5. 도토리 줍기

안봉사의 승들은 도토리를 주워 성주관아에 바쳐야 했다. 도토리가 관아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도토리가 구황식품이므로 죽을 쑤면 구휼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안봉사 승이 도토리를 주워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㉗ 性輪이 전 도토리와 땔나무 1바리를 보내주며 또 松末을 관아에 내달라고 했다. 子公으로 하여금 목사에게 가서 받아달라고 아뢰게 했다. 성륜이 저녁이 되어 1점 8말을 바치고 왔는데,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유숙했다.<sup>76)</sup>

㉘ 관아에서 일전에 각 절에서 수합한 도토리를 도로 그 절에 보내어 담가 씻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멈추도록 도모해줄 것을 청한다고 했다. 판관에게 편지를 썼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普明도 사람을 보내어 도토리를 씻는 것에서 빠주기를 청했으나,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다.<sup>77)</sup>

㉙ 道雲庵의 승이 와서 말하기를, “쇠잔한 절에 쌀·도토리·조 5말을 더하도록 지정하니 걱정이 됩니다” 라고 했다. 子公을 목사에게 보내 말했더니, 재촉하지는 말라는 문서를 만들어 보냈다.<sup>78)</sup>

㉚ 道雲庵의 승 道信이 와서 말하기를, “도토리를 관에 납부하는 일로 1섬을 준비해서 일찍 도착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목사께 아뢰어 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子公을 시켜 이런 뜻을 전했다. “준비해온 수대로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sup>79)</sup>

76) 「性輪送遺蒸橡實及柴一牛，又要納松末于官。令子公往白牧伯前請捧之。至夕乃納一石八斗而來，日暮仍留宿于此。」(『목재일기』 1553년 11월 24일조).

77) 「官中前日收合各寺橡實，還付其寺浸洗云，請停事圖之云云。簡二道，則不從矣。……普明亦伴人求免洗橡云。不果請之。」(『목재일기』 1555년 1월 12일조).

78) 「道雲僧來言“殘寺加卜定米、橡、粟五斗，依悶”云云。伴子公白令道前，則催促安徐文字成送。卽付維那所。」(『목재일기』 1555년 윤11월 6일조).

79) 「道雲庵僧道信來言“橡實納官事備一石曾到，以未准不納，請白令道前”云云。令子公進達此意，則答曰“隨備數可捧”云云。」(『목재일기』 1555년 11월 15일조).

안봉사에서 1년동안 바쳐야할 도토리는 1섬에서 1섬8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봉사 승은 늦가을부터 도토리를 수습하여 1월에는 정해진 도토리를 바쳐야 했다. 안봉사 승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토리의 양을 줄여보고자 했으나 이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수습한 도토리를 절로 돌려보내 도토리를 씻어서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는 도토리 껍질을 벗겨 씻으라는 의미로, 일이 번잡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普明이 찾아와 도토리 씻는 일만은 제외시켜 달라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sup>80)</sup>

1555년 11월 도운암의 승 道信은 겨우 1섬을 마련하여 이문건에게 주고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목사께 아뢰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문건이 子公을 시켜 대신 바치게 하자, 관아에서는 준비해온 수대로 받겠다고 하였다. 1555년 윤11월 도운암의 승은 쇠잔한 절에 쌀과 조는 물론 도토리까지 추가해서 내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관아에서는 도토리 수습을 철회하지는 않고 대신 재촉하지 않겠다는 뜻만 전해 주었다.

#### IV. 維那僧의 관리체제

16세기 성주목에 소재한 사찰의 잡역은 維那僧의 관리체제로 운영되었다. 유나승은 종이제작·메주생산·숙마과정 등 사찰의 실질적인 役을 총괄하고 있었다. 유나승은 본래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각종 문집뿐만 아니라 『高麗圖經』에도 유나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都維那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김인규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유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sup>81)</sup> 조선시대 유나는 사찰의 잡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종단의 유나소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 일은 사찰마다

80) 『목재일기』 1555년 1월 20일조.

81) 김인규, 앞의 논문, 95~96쪽.

돌아가면서 맡게 되어 있었다.

㉔ 安峰寺의 승이 와서 宗團에서 지시한 文字를 보여주었는데, 안봉사를 維那僧이 관할하는 절이 되었으니 절에 있는 그릇[器皿]을 책에 기록해 종단에 올리라고 했다 한다. 積山寺에 있던 惠雲이 종단의 유나가 되어서 함부로 안봉사를 유나가 관할하는 절로 삼아서 이같이 된 것이라고 한다. 希尙이 목사에게 所志를 올려 惠雲을 잡아 推考할 것을 청했다.<sup>82)</sup>

㉕ 안봉사 승들이 사람을 보내 문안하며 말하기를, “持音僧이 내일 상경하는데, 4책에 승의 이름과 그릇 등을 갖추어 기록해 만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다. 답으로 대강을 1책에 써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sup>83)</sup>

㉖ 普明이 오후에 다시 와서 말하기를, “維那僧이 폐단을 많이 일으키니 鄉所에 교체를 논의하라고 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呂安을 시켜 宋別監에게 가서 말하게 했더니 의논하여 교체하겠다고 한다.<sup>84)</sup>

유나승의 임명은 사찰을 총괄하는 宗團의 維那所가 가지고 있었다. 1553년 4월 종단에서 안봉사를 유나승이 관할하는 절로 삼으려고 하니 승의 이름과 기명을 적어 올리라고 하였다. 이들 유나승은 기본적으로 鄉吏의 지시를 받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鄉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별감이 이들의 교체를 결정하기도 했다. 안봉사에서는 性輪과 希尙<sup>85)</sup>·普明<sup>86)</sup>이 유나승을 담당했고, 적산사에서는 惠雲<sup>87)</sup>과 英俊<sup>88)</sup>이

82) 「安峯僧來示教宗文字, 以安峯爲維那所管攝, 寺上器皿, 錄冊上宗云云. 蓋積山居惠雲圖爲宗維那, 擅以安峯爲所居寺, 故如此云云. 希尙呈所志于牧官, 請捉惠云推考焉.」(『목재일기』 1556년 4월 16일조).

83) 「安峯僧等送人問曰“持音僧明日上京, 令作四件冊, 備錄僧名、器皿等云云, 何以爲之”云. 答以大概書一件付之爲可.」(『목재일기』 1553년 5월 5일조).

84) 「普明午後還來言“維那僧多作弊, 送言鄉所議改”云. 令呂安將辭告宋別監前, 則當議遞云云. 又云“斗干莫松將爲人所圖奪, 請告令道”云云.」(『목재일기』 1552년 1월 7일조).

85) 『목재일기』 1553년 12월 10일조.

86) 『목재일기』 1561년 4월 7일조.

87) 『목재일기』 1556년 4월 16일조.

유나승을 지냈으며, 龍起寺의 한 승과<sup>89)</sup>, 소속을 알 수 없는 승 智寶<sup>90)</sup>이 유나승을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유나승은 종이 제작뿐만 아니라 메주 생산·두부 생산·숙마 과장·도토리 줍기·격기[役只] 등 모든 잡역의 실질적인 면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에 종이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주목은 維那僧을 동원하여 종이제작을 주관하게 하였다. 사찰의 승을 유나승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낮고 권한이 크지 않아 양반의 권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이문건은 수시로 유나승을 불러 안봉사와 도운암에서 닥나무를 적게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유나승이 도운암의 종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노를 시켜 귀때기를 잡아 끌어오게 했다.<sup>91)</sup> 유나승도 자신의 일을 고역으로 여겨 피역의 방도만을 찾았다.

1548년(명종 3) 6월에는 유나승이 이문건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문건은 유나승을 미리 불러 안봉사에 닥나무를 많이 주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sup>92)</sup> 이에 유나승이 이문건의 뜻을 받아 안봉사에 닥나무 분정을 적게 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질책을 받게 되었다. 판관은 유나승에게 네 마음대로 닥나무를 줄여주었으니 벌을 받기 싫으면 안봉사에 올라가 직접 해결하라고 다그쳤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문건은 다시 판관에게 청을 넣어서 유나승에게 벌을 주지 말라고 했다.<sup>93)</sup>

1551년(명종 6) 4월 유나승은 이문건을 찾아와 닥나무 100근을 안봉사와 적산사에 나눌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이문건은 곧바로 판관에게 편지를 해서 안봉사에는 닥나무를 분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

88) 『목재일기』 1546년 2월 17일조.

89) 『목재일기』 1551년 3월 14일조.

90) 『목재일기』 1557년 7월 12일조.

91) 「維那僧來, 言不持道雲紙云, 令奴提耳以曳.」(『목재일기』 1551년 12월 21일조).

92) 『목재일기』 1548년 6월 29일조.

93) 『목재일기』 1548년 6월 30일조.

나 판관이 목사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sup>94)</sup> 5월 안봉사 승이 받은 닥나무 중에 소모되어 없어진 것이 많아 걱정이라고 했다. 지급받은 닥나무로는 납품할 종이를 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sup>95)</sup> 6월 이문건은 다시 판관에게 안봉사에 분급할 닥나무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sup>96)</sup> 그러자 판관은 안봉사에는 아예 닥나무를 나눠주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sup>97)</sup>

유나승은 메주 만들 콩을 分定하는 일에도 관여했다. 1552년 1월 이문건은 판관에게 도운암에는 메주 담글 콩을 나눠주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유나승이 이를 듣지 않고 콩을 분정하였고, 결국 문제가 되어 회수한 콩을 다른 절로 보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sup>98)</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자료로 해서 경상도 성주소재 안봉사에서 행해지던 각종 잡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안봉사는 16세기 경상도 성주목 서북방 20리에 위치한 사찰로 성주 이씨의 원찰이다. 안봉사의 경제규모는 30마지기의 사찰 사유지, 논 2마지기와 밭 3뽕기 정도였다가 1557년에 위전 1결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안봉사에는 20여 명 정도의 승이 적을 두었으며, 이 중에 10명 이상 인원이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봉사는 사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종이를 생산할 정도로 비중이 있었다.

2) 안봉사의 승역은 일정 부분 지방군현의 수취체제와 맥을 같이 하

---

94) 『목재일기』 1551년 4월 29일조.

95) 『목재일기』 1551년 5월 7일조.

96) 『목재일기』 1551년 6월 27일조.

97) 『목재일기』 1551년 7월 1일조.

98) 『목재일기』 1552년 1월 29일조.

고 있었다. 16세기 안봉사는 자체적으로 8결호로 편제되어 공물과 요역을 담당하였으며, 사찰에서는 군현에서 부과하는 각종 역을 부담하고 있었다. 사찰의 잡역은 관아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었다. 승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방관아의 수요에 응하였던 것이다. 승은 관아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받아서 정해진 규모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을 고역으로 여겨 빠져나갈 방법만을 강구했는데, 여기에서 이문건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16세기 사찰의 잡역은 維那라는 관리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조직으로 유나승은 宗團의 維那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직은 사찰마다 돌아가며 맡고 있었다. 유나승은 종이제작·메주생산·두부생산·삼베 익히기·도토리 줍기 등 사찰의 각종 잡역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유나승의 일은 군현의 수취체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鄉吏의 지시를 받게 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鄉所가 가지고 있었다. 향소의 별감은 이들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교체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 종단에서는 승을 유나로 삼아 일의 효율을 꾀하고자 했지만, 이들의 신분이나 처지가 너무 낮아 양반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4)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사찰에서 생산한 물품을 상품유통으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보편화되었다. 실제 사찰에서 생산하는 종이·삼베·메주 등의 물품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품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승의 역할은 관아에서 지급한 재료를 받아 정해진 규모의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과정이었다. 이들은 상품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들은 사찰의 각종 잡역을 고역으로 여겨 여기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생산품이 상품유통으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 이 논문은 2020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인규, 『역주 목재일기 1~4』, 민속원, 2018  
정공식 연구책임, 김대홍 외, 『국역 목재일기, 원문표점 목재일기, 목재일기 인  
물사전』 1~6, 경인문화사, 2019

### 2. 논저

- 김덕진, 「조선시대 地方官營紙所의 운영과 그 변천」, 『역사학연구』 12, 1993  
김삼기, 「조선시기 제지기술의 도입과 紙料 가공 기술」, 『생활문화연구』 4, 2002  
김삼기,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영미, 「18세기 전반 향촌 양반의 삶과 신앙-李潛의 『導哉日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2, 2006  
김인규, 「朝鮮 明宗代 星州地域 寺刹의 製紙活動」, 『傳統文化論叢』 1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3  
김순남, 「16세기 조선의 피역승의 증가와 승도 조직의 재건」, 『조선시대사학보』  
66, 2013  
민순의, 「조선전기 度牒制度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박정미, 「16세기 星州 李氏 影堂寺刹 安峯寺의 규모와 운영-『목재일기』를 중심  
으로-」, 『태동고전연구』 31, 2013  
박정미, 「조선 명종대 星州 安峯寺의 儒佛儀禮-『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  
고전연구』 32, 2014  
박정미, 「조선시대 佛教式 喪·祭禮의 실행양상 -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배명애, 「조선전기의 승려통제책과 僧役」, 『釜大史學』 30, 2006  
손계영,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조극선의 일기를 중심으로-」, 『  
장서각』 38, 2017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실제-승정체제·사찰·승도에 대한 정책의 성격과 변  
천」, 『한국문화』 83, 2018  
양혜원, 「僧 조선 초 도승제(度僧制) 강화의 역사적 의의」, 『역사비평』 123, 2018

- 吳京厚, 「朝鮮後期 僧役의 類型과 弊端」, 『國史館論叢』 107, 2005
- 오경후, 「光海君·仁祖 年間 僧役의 實際」, 『韓國佛教史研究』 6, 2015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윤용출,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 28, 2011
- 이성임, 「16세기 지방 군현의 공물분정(貢物分定)과 수취-경상도 성주(星州)를 대상으로-」, 『역사와 현실』 72, 2009
- 이성임, 「16~17세기 ‘공역호’(貢役戶)와 호수(戶首)」, 『역사연구』 24, 2013
- 이성임, 「16세기 지방군현의 立役體制와 승려의 賦役-경상도 성주의 安峰寺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 2015
- 李光麟, 「李朝後半期の 寺刹製紙業」, 『歷史學報』 17·18합, 1962
- 鄭珣鎬, 「李朝後期 寺院雜役考」, 『史學論志』 2, 1974

Abstract

Work done at a temple in Anbongsa Temple  
in the 16<sup>th</sup> century\*

- Based on Lee Mun-gun's Muk-jae Diary -

Lee, Sung-im\*\*

Anbongsa Temple is a temple located in 20ri northwest of Seongju, and is characterized as a guardian of the Yi Clan. Anbongsa Temple is a small temple with 30 temples, two rice paddies, three fields, and one royal temple. Usually, about 10 to 20 monks lived in the temple, but later the number increased to about 40. Even though the size of the temple is not very large, the fact that it is included in the two major temples that produce paper shows that Anbongsa t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rea.

The victory of Anbongsa Temple is in line with the receiving system of local military prefectures under the 16th century system of public payment. In the 16th century, the victory of Anbongsa Temple was not only a member of the Eighth Route Army, but also a group of temples imposed by the county magistrate. The miscellaneous work of the temple was a process of meeting the needs of local authorities based on technical skills and labor. They were supposed to produce good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7064204)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w Guest Research Institute

of a fixed size and deliver them to local authoritie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temple was to provide labor and technical skills in that it produced goods using raw materials. The reason why they are seeking refuge in any way possible is that their roles were too heavy.

In the 16th century, the Buddhist temple was operated under a special management system called Yunamonk[維那僧]. Yunamonk was chosen by Yunameeting[維那所] of religious group[宗團], and was assigned to each temple. Yunamonk was in charge of various miscellaneous affairs of the temple, including papermaking, horseback riding, meju production, and tofu production. Yunamonk work is related to the receiving system of the county, so it was instructed by the government, but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m was in area Autonomous Organization. In that sense, the distinctiveness of the locality could have determined their replacement. The organization was able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work by appointing a bright winner as Yuna, but their status was often too low and their authority was small, so they were often swayed by pressure from the aristocrats.

**keywords :**

Lee Moon Gun, Mukjae Diary, Papermaking in Buddhist temples, softening hemp, Make Meju, Tofu Making, Yunamonk[維那僧], Yunameeting[維那所], area Autonomous Organization.